

<함께하는예배소식>

- 함께하는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목회실에서 환영 및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 주보에 기재된 주간 나눔의 말씀을 읽고 가정 및 소그룹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2011표어:가서 제자 삼아라(마28:19)
- 전도실천: ①금년도 전도대상 정하고 기도하기. ②직접 전도하기
- [전주함께하는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①오전 10시 30분 오전 예배(전교인이 함께 드림),
 - ②12시 30분 1시 30분(리투에배, Little Together 분당)
 - ③오후 2시 (유투에배, Youth Together 분당)
 - ④오후 2시 (복습교제, Holy Community 장년부 남전도실, 여전도실)
 - ⑤오후 3시 30분(베리트에배, 장년부 분당)
 - ⑥수요일 저녁 7시 30분
 - ⑦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밤 9시
-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오전 예배 시에 학습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례감사헌기도 드립니다.
학습받고 세례받은 지체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함께하는교회] 조직발표
 - ①5월 29일 주일 낮 예배 시 우리교회 새 출발과 함께 조직을 발표합니다.
- [전주함께하는교회야외행사]
 - 다음주일(29일) 낮 예배 후 오후 2시부터 은고를 중학교체육강단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 전주함께하는교회 악기단 소식
 - ①매주 토요일 4시(신입반) 무료 악기레슨이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매주 토요일 5시(기존반) 무료 악기레슨이 있습니다.
(신청 및 악기준비 의뢰:김부자 집사, H.010-8223-9742).

<유투공동체예배소식>

- 유투공동체예배 이후 순 모임이 있습니다.
- 예배 팀원으로 섬길 지체를 모집합니다.
- 예배 간사로 섬기실 한 분을 모집합니다.
- 다음주 예배는 성례예배로 전교인들과 함께 드립니다.

[함께하는교회 안내] [마 28:19]

-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합동) 동전주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로서 교회 이름은 “함께하는교회(Together Community Church)”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에 두고, 그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며, 개혁주의 신학과 그 유산들인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신조’, ‘톨트신경’, ‘벨직신앙 고백서’ 등을 배우며, 그 교리를 실천하는 현실적 증표를 거룩한 사명과 헌신을 우리교회의 표지(얼굴)로 삼았습니다.
- 우리교회는 바이블아카데미 안에 성경대학을 개설하여 초급반(기독교교리공부 10주과정)과 중급반(성경의숲을보는교육 8개월과정)과 고급반(역사, 사상, 문화관, 세계관 공부, 약 2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회는 이단이 난무한 시대에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안내해 주고 치유해 주는 사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22일

함께하는교회표지

-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순전한 말씀 선포
- *개혁주의 신앙 실천
- *거룩한 사명과 헌신

바이블 아카데미

- 성경대학 운영
- 기독교 사상 세미나
- 회복 사역 센터
(이단상담 & 치유)

공동체 예배시간

주일함께	10:30
하는예배	
유초등부	12:40
유투공동체	14:00
오후예배	15:30
수요예배	19:30
금요기도회	21:00

대한예수교 장로회 함께하는교회

담임목사 오명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12-5
(☎ 242-0391, 245-0391, FAX 242-0191)
(✉ dasisijac326@hanmail.net)

가서 제자 삼아라 (마 28:19)

주일함께하는예배

오전 10시 30분

인도:오명현목사

전 주(프롤로그)

반주자

시편낭독 **창63-4**

오명현목사

영 광 송 **630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삼위송 **308장**

성서교독 **교독문 89번**

경 배 송 **259 장**

기 도

정재용 집사

교회소식

오명현 목사

성경봉독 **창12:1-14**

봉 헌 **215장**

헌금위원 정재용집사

봉헌기도

오명현목사

말씀강론 **새로운 생의 의미**

오명현목사

기 도

인 도 자

※ 성례식 ※

시작기도 : 김희준 장로

- ①학습 서약(김영재, 최은경, 김민지, 박수미)
- ②세례 서약(김영진, 이현준, 서예찬(입교))
- ③유아 세례(김영찬) 부모:(김민수, 오성원)
- ④자녀들에 대한 어머니의 기도
- ⑤학습자들과 입교 자에 대한 축하

찬 송 **255장**

다 같이

배 병

서재호집사

배 잔

서재호집사

찬 양 **우리는 사랑의 피로**

다 같이

축 도

오명현목사

후 주

반 주 자

교회소식

인 도 자

※ 다음주 기도: 이정환 집사 ※

※ 헌상 위원:정재용 집사 ※

안내위원:이정환집사, 김용회집사

주일
오후
예배

찬양	김은혜집사
말씀	창1:1-31	오명현목사

수요
예배
안내

본문	행14:19-28	
말씀	교회조직과 본질	오명현목사
기도		김용욱권사



는 함께 읽자

신록이 우거진 여름 산, 어느 곳을 가나 생동감이 넘친다. 기린봉 병풍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아중리가 정겨움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요즈음 운동 얼굴을 감추듯 마스크를 쓴 주부들이 눈에 띈다. 산책하는 사람들,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 심지어 운전하는 여성들 중에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베트남 거리에서는 마스크 우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마스크의 유래는 191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스페인 감기, 즉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였을 때부터 사용되었다. 마스크는 감기에방 차원만이 아니라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한 위생용품이다. 또한 야구의 포수나 펜싱선수들이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이기도 하다. 공장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착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스크는 실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한 사회를 대변해 주는 상징성도 있어 보인다.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보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마스크는 또 다른 면을 보이기도 한다. 육체의 허약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도구일 수도 있다. 결핵 퇴치에 국가가 힘을 쏟았던 70년대에는 결핵 환자들은 거의가 다 마스크를 착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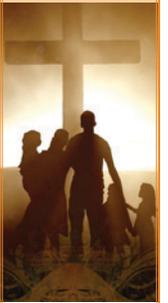
그러기하면 마스크의 사회학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된다. 마스크는 병든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욕구 분출을 위하여 데모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한 독재 정권에 맞서서, 불합리한 경영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마스크가 쓰여진다. 그런 점에서 마스크는 병을 이겨내거나 병든 사회를 고치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그것이 전두환을 굴복시킨 6·29 항쟁이 아닌가,

1994년에 미국의 영화 감독 척 러셀이 [마스크, the mask]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에지 시(Edge City) 은행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평범한 은행원 스탠리가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고대 시대의 유물인 마스크를 발견한다. 그런데 이 마스크는 아주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스탠리가 마스크를 쓰면 초인적인 힘을 가진 불사신이 된다. 스탠리는 나이트클럽 가수인 티나를 사랑하여, 악당 조직 두목에게서 티나를 건져내려고 한다. 마스크의 신비로운 힘 때문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난다. 그 소동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게 쫓긴다. 그리고 악당에게 신비의 마스크를 빼앗긴다. 신비의 마스크를 손에 넣은 악당 보스가 그 마스크로 도시의 세력을 장악하고 거기에 스탠리가 홀로 맞서서 싸운다는 내용이다.

또한 1994년에 일본 작가가 지은 괴담 소설 중에 [빨간 마스크]가 세간에 나돈 때가 있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밤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나 이빠?' 하면서 물어본다. 그리고 안 예쁘다고 하면 칼로 죽이고, 예쁘다고 하면 마스크를 벗고 찢어진 입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예쁘다고 하면 자기처럼 똑같이 가위로 입을 찢어준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두 작품 모두 자기를 감추려는 인간의 본능을 드러낸 작품들이라고 생각된다. 마스크, 상징적인 의미가 풍부하게 담긴 용품이다. 감추고 보호하는 매력도 있지만 숨겨진 욕망과 음흉함도 만만치 않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도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마스크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회사원들이 감원 바람으로 덜덜 떨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정치인, 경제인, 대학교수들, 종교지도자들 모두가 가면의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경제 위기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회사가 있다. 사장이나 사원들이 모두 가면의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독한 겨울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쓰고 다니는 마스크는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어 인간의 내면을 그려주는 또 다른 나의 자화상이다. ■



부유초배등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같이
기 도		박성미 집사
성경읽기	마5:1-3	다같이
교리말씀	하나님의 스콜론(시리즈설교)	이택남목사
봉 헌	내 눈 주의 영광을	다같이
축 도		이택남목사

[마태복음 5장 1-3절]

-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요엘 기자는 여호와와의 날에 다가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메뚜기를 여호와와의 군대라고 했다(욘2:11). 사물이나 짐승이나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을 받는 존재이다. 어차피 쓰임 받을 때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악한 날에 악한 일에 적당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메뚜기 재앙⑧

출10:1-20

목니가나눔

이방인은 죄에 대한 특징이 있다. 본인에게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잠시 누우치는 듯한 자세를 갖는다. 그러나 불행이 멈추면 또 다시 고개를 치켜든다. 바로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한다. 우리는 반복적인 회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상 바로처럼 어리석은 누우침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1. 메뚜기 재앙을 내리다

①메뚜기는 동양에서 몹시 성가시게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그것들은 농작물들을 먹고 식물들을 먹어치운다. ②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와 그 궁중과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 ③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식생활 공급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시편기자는 이 재앙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시105:34,35)

2. 바로의 신하들의 건의

①바로와 신하들은 바로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 ②바로와 신하들은 이제 그만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자고 건의를 했다. ③그러자 바로가 타협안을 내 놓았다. 어린아이들은 놓아두고 장정만 가서 광야에서 제사하라고 일러주었다. 아직도 바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격이 아니었다.

흠암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에게는 빛과 열의 근원이었던 것이 소멸될 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신이 모호해 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태양보다도 태양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심판으로 다스림을 보았을 뿐이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있고, 성령의 빛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의의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생명의 빛을 받을 뿐이다.

흠암 재앙⑨

출10:21-29

목니가나눔

아홉 번째 재앙이다.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사건의 경고 없이 내려졌다. 아홉 번째 재앙은 땅에 흠암이 내리는 것이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라(Ra)의 신으로 경배했다. 바로라는 이름 역시 “태양 신의 아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악한 신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1. 흠암의 재앙이 내리다

①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손을 하늘로 내밀었다. 앞과 옆과 뒤가 분간되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②하나님은 빛이시다. 흠암이란 빛의 물러남을 의미한다. ③어두움의 심판은 애굽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비출 빛이 없다. 현재도 미래도 볼 수 없다. 무저갱에 갇힌 자들이 되었다.

2. 언약 백성에게는 빛이 사라지지 않음

①애굽에는 흠암에 가두어졌으나 이스라엘민족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어졌다. ②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양과 소는 남겨두고 모두 나가라고 했다(24절). ③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기 때문이다(고후4:6).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처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잠4:19).

새로운 생의 의미

들어가는 말

오늘은 성례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성례식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으로서의 공동체를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맥주한이 예견한 것처럼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사이버 교회는 개인이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개인주의적인 예배를 하도록 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합니다. 그러나 사이버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전혀 모른 소치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은은 개인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전주함께하는교회]라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날로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구현이 성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의 의미로서의 성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일어난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유월절 사건과 관련하여 성례식을 통해 누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례식은 자유가 보장된 시간에 참여하였다는 은혜의 증표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시켜 따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백성으로 산다면 자유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로 양이나 염소 중에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첫날 준비한 양을 4일되던 날에 잡고 그 피로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출 12:3-7). 그리고 유월절에 먹을 음식은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어야 합니다. 먹을 때 물로 삼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되 남은 것은 불에 태워 버리라고 합니다(출 12:8-10). 또한 유월절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출 12:11). 새로운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곧 자유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례식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대속(代贖)받은 구원의 은혜를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은 속죄의 은혜를 준 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속죄 없이 행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파사흐, פסח, 머뭇거리다”에서 파생된 말로서 “뛰다, 뛰어 넘다(to jump over), 넘기다(to spare)”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넘긴다는 말인가? 죽음을 넘긴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집에는 죽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장자와 생축의 처음 것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집에는 문지방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가정도 반드시 장자가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의 어린 양은 그 어린 양 자체가 대속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豫表)합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면 죄가 사함 받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이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들의 집에서 뛰어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례에 참여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는 죽음이 넘어간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야가 구원자로 오실 것인데, 그는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

성례주일설교(제2강)

출12:1-14



주함께
일끼
말하
는
썸



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7).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어린양 예수의 구원을 마음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도 있고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례식은 죄의 더러움에서 씻음 받아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데 쓰였던 우술초 묶음은 정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술초는 흔히 담벽에 자라는 박하초의 식물로서(왕상 4:33) 그 냄새가 매우 향기롭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레 14:4-9). 다윗은 이러한 정화의 요소를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1-2,7). 이는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유월절 규례 중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군’들은 이스라엘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동 집단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유월절 예식의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고자 하여 할례를 받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성례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공동체를 생명처럼 여기며 은혜의 세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준 구속사의 가장 뛰어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매년 하나님에게 자신을 보여야 하는 원리를 율법 속에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것이지만 특별히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성례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본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던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목적을 가진 생명성의 발휘와 책임 있는 자유를 누리는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다 성숙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의 시간을 놓고 장성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부여받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지 일년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기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定期)에 지키게 하라, 곧 이 달 십 사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지니라”(민 9:2-3).

하나님의 백성 됨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부정하는 자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월 십 사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라”(민 9:11). 곧 시체로 인하여 부정한 자는 한달 후에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니라”(민 9:13). 유월절은 보통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놓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지만 절기가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과 감사를 잊지 않는 절기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은총과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는 유월절 절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므로 이스라엘은 개인의 삶의 차원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신 한 하나님의 통치아래 만방에 여호와와 이름을 높이는 신국적인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는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거듭 바로와 그 궁전에 그리고 전 백성들에게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을 뿐이다. 열 번의 재앙 중에 바로에게 통고되지 않은 재앙은 세 번째와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였다. 마지막 역사의 심판 때를 연상하게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만 불신자들은 준비할 거를도 없이 곧바로 대심판을 받는다.

1. 약성 종기 재앙이 내리다

①여호와께서 모에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가 보는데서 하늘로 날리라고 하셨다. ②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재를 날렸다. ③그러자 애굽의 사람들에게 약성 종기가 생겼다. 심지어 요술사들에게도 종기가 생겼다. 재가 무엇이기에 악한 종기를 생기게 했는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무관하지 않다.

2.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기력함

①이렇게 악한 종기가 생겼음에도 바로는 더욱 악해져만 갔다. ②애굽 사람들은 유행병을 무섭게 알고서 우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다. ③그 우상은 질병을 다스린다는 사자 머리처럼 생긴 세크멧(Sekhmet)이 있고, 악질의 신 수누(Sunu)와 치유의 여신 이시스(isis)였다. 이 신들이 재앙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다.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7번째 재앙부터는 이제까지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내리지고 있다. 바로는 이제까지의 재앙을 보면서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을 베풀지 않았다면 벌써 바로는 죽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1. 우박 재앙을 내리다

①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강박한 마음을 꾸짖듯이 말씀하게 지적하셨다. ②강박한 마음을 교만에서 비롯됨을 지적하셨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을 앞잡이다(잠16:18). ③교만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내리셔서 사람들과 짐을 죽였고 농작물도 모두 패망하게 되었다.

2. 두려워 할 줄 아는 신하들

①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 바로의 신하들도 많았다. ②그러나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우박을 피하려고 숨었다(20절). ③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다(24절). 이 세상을 개혁하려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바로가 반응을 보였다. 이 스리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라고 했다(28절). 하지만 루아침에 달라질 바로가 아니었다. 다만 바로는 뉘우치는 듯 하면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우박은 사람과 나무와 짐승과 삼과 보리를 다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한다. 할렐루야,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25절), 너무 멀리 가지 말라(28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술책이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하게 선언을 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안되면 거짓말을 한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파리재앙④

출8:20-32

복기교회를

첫째는 나일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재앙과 둘째는 애굽의 왕궁과 온 땅에 개구리 재앙이 내리고, 셋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 내려졌다. 이 모든 재앙은 애굽의 종교와 관련이 있다. 인간의 종교성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애굽에 내린 재앙은 생명 없는 우상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것이다.

1. 파리 재앙을 예고하다

①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르셨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구하라고 하셨다. ②만약에 내보내지 않으면 왕궁과 온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집에 파리 떼의 재앙을 내릴 실 것이라고 하셨다. ③그리고 곧바로 파리 재앙이 내려졌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파리 형상의 우상인 핫콕을 숭배했다. 그러나 그 우상이 무서운 질병을 옮기므로 대재앙이 되었다.

2. 내 백성을 구별하리라

①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②전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구역을 구분하셨다. 즉 언약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다. ③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바로에게는 두려움을 언약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당대에 세계를 지배하였던 애굽이었지만 각종 우상을 섬기는 다신론 국가였다. 그러나 우상은 무력함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 언약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이런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재앙⑤

출9:1-7

복기교회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다. 바로에게 가되 너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름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특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을 언급하셨다. 여기 히브리 사람이란 과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을 떠나기 위해서 강을 건너 왔다는 데서 그 이름의 유래가 시작되었다.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참된 신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다.

1. 가족이 재앙으로 죽으리라

①모세가 바로에게 경고를 했다. 만일 히브리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②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 곧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죽었다. ③바로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듭되는 재앙이 자신의 완고함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2.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재앙

①재앙의 대상이 되는 짐승은 말과 양과 낙타와 소와 양이었다. ②그런데 이 동물들은 애굽에서는 하나의 신으로 신성시 된 것들이다. ③황소는 다신을 주관한다는 아피스(Apis)와 레(Re)의 신으로, 암소는 사랑과 미와 기쁨의 여신인 하토르(Hathor)로, 양은 크눔(Khnum)의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의 소중함은 알면서도 자기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소홀히 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하나의 사건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 생명의 절기를 너희들이 벗어나지 말고 너희 민족이 있는 동안에 대대로 지켜야 할 지니라. 바로 이 생명의 절기를 통하여 너희는 영원한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례식을 맞아 여러분들이 자유인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31절을 보면 “그러즉 형제들이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세계에 거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성례식은 나 자신이 이 세상과 죄의 세계에 갇혀 있지 않은 자임을 알게 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례식에 내가 참여했다는 것은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곧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을 성례로서 더욱 확증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 주저앉은 악습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식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속죄의 확신을 성례식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또한 성례식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례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축하의 자리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한번의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장성을 우리 삶에서 확인됩니다. 성례식은 은혜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다시 내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Holy Community

1. 성례식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성례식은 무엇을 드러내는 예식인가? 이번 성례식은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며 보내셨습니까?
2. 성례식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그 첫째를 정리해 보자.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가성례를 통해서 확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3. 성례식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그 둘째를 정리해 보자.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린양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어린양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4. 성례식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 그 셋째를 정리해 보자. 유월절에서 정결의 의미를 개인보다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
5. 성례식을 통해 누리는 은혜 그 넷째를 정리해 보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했는가?
6. 성례를 통해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깨닫게 되는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자들이며 이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알려 주셨는가?
7. 유월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과 동시에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가? 새 언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순 복습 교제 후, 의문사항 및 목회자와의 말씀나눔을 원하시면 순장님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TH
TOGETHER
COMMUNITY**

오후 2시		인도:오명현목사
전 주(프롤로그)		반주자
시작기도		정재용집사
사도신경		다같이
다함께 찬양		예배팀
기 도		김민지
환 영		예배팀
성경봉독	단 1:8	서예지
말 씬 뜻 정하기		이택남목사
봉 헌		이택남 목사 *
축 도		이택남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예배 위원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5월 29일
대표기도		김한나	이요셉	김민지	이현준
성경봉독		김영진	서예찬	서예지	김희호

성경봉독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유투공동체 소개

유투공동체는 Youth Together 의 약자로 함께하는 교회의 젊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Youth Together(유투)공동체 예배의 Vision.

성경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
 공동체 헌신과 섬김이 있는 예배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예배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유투공동체를 섬기는 분들 (Church Leadership)

대학청년부 : 오명현목사 (010-5207-0699)
 부장 집사: 정재용집사 (010-8456-0070)
 대청사역자 : 김민수 집사(010-4631-2420)

청년회장: 이요셉(010-6757-1040)
 여호수와순장: 오영준(010-2773-9258)
 갈렙순장: 김은중(010-9766-1119)
 요셉순장: 서주원(010-6812-2033)